

#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ALPC) 개장

- 1일 돼지 2,250두 가공·처리
- 안성시와 3개 육가공업체 공동 참여

지역 양돈농가에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신선한 육류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ALPC : Ansung Livestock Packing Center)이 지난 4월 9일 개장하였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이란 우량 민간업체와 생산자단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축생산, 도축, 가공, 판매(수출)를 일관처리하는 선진국형 축산물 유통시설을 말한다.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공업단지에 위치한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은 1일 소 110두, 돼지 2250두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처리장이 가동됨으로써 국내 축산물 유통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는 축산물 유통단계가 보통 5~6단계(생산농가→가축시장→수집상→도축장·도매시장→수집상·중매인→식육업소→소비자)에서 3단계(생산농가→축산물종합처리장→가맹점·직판장·농가직판장→소비자)로 생산농가는 10% 이상의 높은 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냉장육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의 조기 구축과 국내산 육류의 소비자 인식 제고, 대일냉장 돼지고기 수출촉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유통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국내의 축산물 수입개방

과 고비용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신거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세워졌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금년말까지 4개소, 내년(99년)까지 총 10개소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준공하여 국내산 육류유통량의 30~40%를 공급하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동아축산(경북)이 6월까지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부천산업, 경기도 진승산업이 하반기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안성축산진흥공사와 3개 육가공업체가 참여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은 안성축산진흥공사와 (주)바른터, (주)대한인티그레이션, (주)선진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비 370억원(정부지원 121억, 지방비 15억, 자담 207억)을 들여 최고 위생수준의 도축, 가공시설(부지 14,770평, 총 건물 5,570평)을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장으로 준공되었다. 이번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이 준공, 개장됨으로써 업계 관계자들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위생적이고 깨끗한 육류공급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증대로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만 아니라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가동으로 지역



◀지난 4월 9일 개장한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 개장식 전경

▼위로부터 안성축산진흥공사, (주)바른터, (주)대한인티그레이션, (주)선진, 이들 4개 업체가 참여하여 초현대식 축산물유통을 선도하게 된다.

주민의 고용효과로 인한 소득증대와 도축세 등의 지자체 수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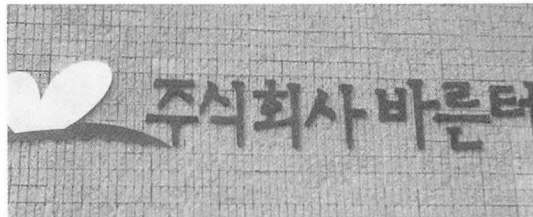
특히 양돈농가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계열화 또는 계약생산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사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운영은 (주)바른터, (주)대한인티그레이션, (주)선진 등 3개의 육가공회사가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은 계열농가로부터 원료돈을 확보하여 이 물량을 안성축산진흥공사로 반입하여 도축을 한 후 이 지육물량을 다시 3개 육가공회사가 따로 가공하여 회사별로 자체 식당과 체인사업을 통해 내수 및 수출을 하게 된다.

안성축산진흥공사는 안성시, 안성축협, 안성시 지역농협, 제일곡산(주), 안성시 기업조합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이며,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종합도축장이다.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도축을 전담하게 된 안성축산진흥공사는 기본적으로 USDA 및 축산물 위생처리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설계된 작업장을 갖추고 있으며 생체검사실, 격리실, 계류장으로 구분된 도축시설은 차량 3대가 동시 하차 가능토록 하였다.

특히 모든 물품의 철저한 위생소독시설은 물론,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Unit Cooler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생축 입구에서 지육 출구까지 농



이러한 선진국형 종합처리장을 통해 양돈농가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통단계의 축소에 따른 간접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좀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수출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한 사양관리에 포인트를 맞추어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돼지를 생산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가별, 등급별, 중량별로 종합관리하여 육가공 3사로 자동연결되는 시스템, PSE육 방지 및 표면 미생물 번식을 억제시키는 3개 섹션의 급냉터널을 갖추고 있다.

“내 아들 딸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겠다는 (주)바른터는 제일곡산(주)와 대한제당(주), 그리고 양돈 계열화의 선두업체인 (주)도드람유통이 70억원을 공동출자해 설립한 기업합자형 회사이다. 식품의 안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바른터는 양축가의 수익과 발전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현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출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특히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품생산에 중점을 두어 축산물의 사육 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 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바른터는 현재의 육가공 생산에 주력함은 물론, 동시에 직영식당, 체인사업, 택배,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 미래형 산업의 단계적인 확장을 피하여 21세기 육가공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주)대한인티그레이션은 대한사료(주)가 투자하여 설립한 신설법인회사로 지난해 양돈 계열화 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가속화 시키면서 생산, 수출, 유통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인티그레이션을 확립하였다.

(주)대한인티그레이션의 육가공 자동화시설은 제품의 위해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모돈농장, 자돈농장, 비육돈 농장을 분리, 사육하는 전형적인 3-SITE 생산방식으로 분업화, 표준화, 전문화를 통한 대량 원료돈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자본금 34억 5천만원으로 출발하여 짧은 기간

동안 USDA 기준에 맞춘 생산시설을 갖춘 (주)대한인티그레이션은 엄선된 원료, 신속하고 청결한 생산공정 및 제품관리로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함은 물론, 전 과정의 전산화 및 HACCP(위해요소관리제도)도입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일종축 농장으로 시작된 (주)선진은 창업 이래 종합축산전문회사로서 최고품질의 종돈과 사료, 기술실험 등을 공급하여 한국축산의 자존심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육가공 사업부문 또한 세계적인 맥도날드사에 그 품질과 위생수준을 인정받는 등 4반세기를 한결같이 한국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업체로 평가되고 있다. (주)선진은 그동안 서울 3대 도매시장에서 항상 평균시세보다 200원/kg 이상 높게 평가되는 우수한 원료돈을 사용해 크린포크를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모든 입고되는 원료 및 출고전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실험실을 통하여 사전에 E-coli O-157:H7, 일반세균, 대장균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HACCP의 실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제품의 질을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선진국형 종합처리장을 통해 양돈농가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통단계의 축소에 따른 간접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좀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수출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한 사양관리에 포인트를 맞추어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돼지를 생산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취재 : 이병석> **養豚**